

협회발전과 정보통신 진흥에 앞장설 터...



〈鄭溶文 신임회장〉

그동안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국가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그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신 韓泰熙 회장님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직 경륜이 미천한 저로 하여금 회장의 중책을 맡도록 천거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법정 민간단체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취지가 이처럼 중차대하고 또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성심성의껏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회원 수나 예산, 그리고 이루어 놓은 사업실적 등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사회는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정보와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팽창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력과

자본, 그리고 자원 등 세가지가 경영의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이는 이미 구태의연한 발상으로서 정보나 기업문화 등이 새로운 경영요소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나 물자, 돈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사회가 정보화될 수록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일본의 NEC를 들 수 있는 데, 이 회사의 1975년도 매출은 신일본제철의 7분의1 수준 밖에 되지 않았지만 12년 뒤인 1987년도에

는 이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NEC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신일본제철의 제품은 12년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NEC의 제품은 완전히 탈바꿈해서 정보화되고 지능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성장의 근본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NEC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기업문화를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업에 있어서 하드적인 면 보다는 소프트적인 면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B777이라는 기종의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착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994년에 이를 본격 생산할 계획으로 있는 양국은 항공기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분담하고 있는 데, 작업과정에서는 약300명 가량의 보잉사 엔지니어가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든지 후지중공업, 신메이와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등 일본의 유명한 기업들에 파견되기도 합니다.

작업공정이 복잡한 항공기를 이처럼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국의 관련 기업들이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체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협회의 역할정립을 보다 확고히 함은 물론 국가정보 화라는 당면과제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보잉사와 일본기업들간에 형성된 이같은 CIM체제는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구매, 제조, 판매, 그리고 작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정보를 real time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borderless경영 즉, 국경이 없는 경영으로서 이제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국가의 기간산업은 물론 간접자본설비, 그리고 각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들 까지도 모두 정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화야말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적인 사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우리 산업인들의 권익 대변기구인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민간단체로서 협회는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국내 통신시장도 더이상 우리만의 것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개방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이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합으로 협회의 역할정립을 보다 확고히 함은 물론 국가정보화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지역시 주어진 임무에 따라 협회 발전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